

‘통전교육’에 관한 간단한 설명

통전(統全)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온전히 하다.’는 뜻입니다. 원래 모든 것은 하나의 근원에서 비롯되었기에 서로 이어져 있었으나 많은 이유로 나뉘고 끊어졌으니 정성을 다해 다시금 온전히 살려내자는 뜻입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온전하게 관계를 맺을 때 참다운 성장이 이뤄진다는 일종의 전인(全人)사상이며 홀리스틱(holistic) 사상인데, 다른 점이 있다면 모든 것은 정신(얼), 물질(몸), 관계(새)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동의 근원(하나)에서 출발하여 개별화(둘)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둘 사이의 갈등과 조화를 통해 성장(셋)이 이뤄진다는 발달론을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개의 경우, 전인사상이나 홀리스틱사상은 모든 것을 고르게 잘 발달시키자는 취지만 있지 그것이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는 정신과 심리, 육체의 고유한 발달과정을 무시한 채 모든 시기에 모든 것을 다 가르칠 수 있다는 평면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아이에게도 뇌교육이니 뭐니 해서 정신의 발달을 무리하게 끌어내거나 다 자란 뒤에도 일방적인 도덕률 암송이나 비과학적인 신비주의로 현실감을 흐리게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대안교육이 제도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부수적인 입장에 있다면 통전교육은 인간 본연의 모습을 발달의 과정에 맞게 잘 구현하고자하는 본질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부수적인 입장의 경우, 언제든지 탈이 나면 그때그때 치료하고 치유하여 본래 자리로 돌려보내는 데 목적이 있겠지만 본질적인 입장에서 보면 교육의 출발점에서부터 올바른 인간이해를 바탕으로 한 교육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탈(교육의 실패)이 일어날 경우가 아무래도 적겠지요.

방법론에 있어서도 본질에 집중하면서 차이를 구별 존중하는 방식으로 교육합니다.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여, 그것의 정신-물질-관계의 내용이 하나-둘-셋의 흐름을 따라 확산되어가는 것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을 합하여 하나를 이루려 하는 통합의 방식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을 끌어와 수단화시켜버리는 프로젝트 방식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해설집 첫머리에 나오는 홍익인간이 다음 쪽으로 넘어가질 못하고 갇혀 있어서 교과별로 아무 연관성도 없고 소통하지도 않는 지금의 분절된 교육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홍익인간이 두루두루 다닐 수 있도록 과목마다 서로 통하고 학습과 생활이 서로 이어지게 해서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자는 것이 통전교육이 바라는 바입니다.

통전교육을 ‘아이의 온전한 성장에 온 마음을 쏟는 교육’이라고 간단히 말해도 좋겠습니다.